

▶ 내신 기출 문학 지학사-상편 ◀

1. 문학의 본질과 가치

- ①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36문제)-----1쪽
- ② 두근두근 인생 (32문제)-----16쪽
- ③ 흰 바람벽이 있어 (33문제)-----37쪽
- ④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43문제)-----54쪽
- ⑤ 광장 (15문제)-----84쪽

2. 문학의 소통

- ① 산도화 (33문제)-----94쪽
- ② 흥보가 (43문제)-----110쪽
- ③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34문제)-----138쪽
- ④ 즐거운 편지 (38문제)-----159쪽
- ⑤ 로디지아발 기차 (2문제)-----177쪽
- ⑥ 허생전 (38문제)-----183쪽
- ⑦ 남한산성 (14문제)-----207쪽
- ⑧ 총, 꽃, 시 (17문제)-----219쪽
- ⑨ 만화 토지 (2문제)-----232쪽

3. 한국 문학의 성격

- ① 어미 말과 새끼 말 (9문제)-----235쪽
- ② 송인 (26문제)-----245쪽
- ③ 사미인곡 (32문제)-----257쪽

◆빠른 전체 정답-----275쪽

◆정답-----278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내신 기출 문학 지학사-상편◀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문학 지학사-상편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내신 기출 문학 지학사-상편◀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문학 지학사-상편 ◀

맘맘이 곧 현실이 된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예언서>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분석 정리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대상이 지난 복잡한 내면(대상에 관한 이해 부족)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타인을 비유함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상과의 거리감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대상에 대한 선입견, 편견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 대상에 관한 선입견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함.

대상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대상의 본질(타인의 진정한 모습)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대상에 관한 이해의 시작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 대상과 세계에 관한 이해와 자아의 성숙 과정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수천의 빛깔을 갖게 된 까닭

그래서 외로웠을 것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대상에 관한 이해의 심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함.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회자와 대상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와 대상 사이의 조화와 통합

대상에 관한 거리감이 사라진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

◆핵심 정리

-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 2) 성격: 고백적, 성찰적, 비유적
- 3) 제재: 복숭아나무
- 4) 주제: 다른 대상(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과 보람
- 5) 특징: (1)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의 변화를 드러냄
(3) 도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형성함

1. 표현상의 특징

시구	표현상의 특징
~습니다 / ~입니다	• 경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함. • 독백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고백함.
그 복숭아나무, 그 나무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화함.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 가만히 들었습니다 / 저녁이 오는 소리를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함.

2. 이 작품의 시상 전개

1연: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나무는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편견을 가진. •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알게 됨.
↓
2연: 진정한 관계의 모습, 공존과 사랑의 세계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음.

3. 시구의 함축적 의미

시구	함축적 의미
흰꽃과 분홍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적으로 드러난 대상의 피상적 모습 • 이중성, 양면성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편견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
수천의 빛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이 지닌 진정한 모습, 참모습 • 여러 겹의 마음

4.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복숭아나무'에 대한 오해와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 •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음. •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 멀리로만 지나침.
'복숭아나무'에 대한 재인식·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멀리서 알게 됨. •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됨. •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림.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음. •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음.

5. 화자의 정서 및 태도

• 이 작품의 화자는 '나'로, 복숭아나무 또는 타인에게 다가가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며,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성찰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6. 이 작품의 주제 의식

• 이 작품은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이 지닌 참모습을 발견하고 타인에 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복숭아나무'로 비유된 시적 대상에 대해 화자는 처음에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으나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대상에 대해 이해하고 깨달은 뒤 비로소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조화로운 시간 속에서 대상과 교감하게 된다. 화자는 '그 복숭아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피우고 싶었으나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이라는 인식에 이르는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복숭아나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숙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학습 활동 문제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관해 인식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대상	인식한 내용
흰꽃과 분홍꽃이 핀 복숭아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임.
꽃잎들이 흩어진 복숭아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음.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았을 것임.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임
꽃잎들이 흩어진 복숭아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음.

2. 이 작품의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얻은 깨달음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은 자연물에 빗대어 인생의 체험을 노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밝혀 보자.

시구	함축적 의미
흰꽃과 분홍꽃	피상적으로 바라본 대상의 모습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선입견으로 판단한 대상의 부정적 모습
수천의 빛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모습

(2) 이 작품의 화자가 체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파악해 보자.

화자가 깨달은 점	선입견을 지니고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그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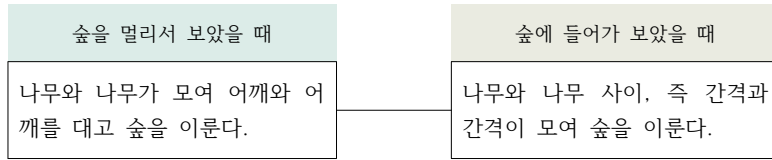
3. 다음 작품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와 비교하며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 안도현, 「간격」

제재 연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상징적
어조	독백적 어조, 성찰적 어조
제재	숲
주제	적당한 간격의 소중함에 관한 깨달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를 인격화하여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함. · 새롭게 깨달은 바를 깨달음을 얻기 전의 상황과 대비하여 표현함.

1.①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이론편]

(1) 위 작품의 화자가 ‘숲’에 관해 인식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2) 위 작품의 화자와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의 화자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방식의 차이점을 발표해 보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즉 ‘그 복숭아나무’를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해 멀리하려 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화자는 ‘그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대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간격」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숲을 멀리서만 보았을 때에는 나무들이 뻗뻗하게 모여 숲을 이루는 것이라 인식했지만,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나무와 나무 사이의 그 간격이 모여 숲을 이루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A]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시다

〔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
 는 아마
[B]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
 을
[C]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D]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
 다

〔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E]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셔야 알았다
 - 안도현, 「간격」

죽전고등학교 (경기)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대상에 대한 성찰의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문장의 종결에 변화를 주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생명이 없는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감정을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죽전고등학교 (경기)

2.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감이 드러난다.
- ② [B] : 대상을 피상적으로 인식했을 때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 자연물에 감정을 부여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 ⑤ [E] : 공간의 이동이 계기가 되어 화자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죽전고등학교 (경기)

3. 다음을 통해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에서의 시간의 양상은 시인이 가진 의식의 양상을 보여 준다. 시간에는 시인의 삶이 담겨 있고 시인은 이것을 시어에 담아낸다. 따라서 시어에는 한 시인이 시간을 통과하며 겪어 낸 정신세계의 골격이 담겨 있다. 때문에 시어의 비유적 의미의 탐색은 시인이 겪어 낸 시간의 의미에 대한 탐색과도 연계된다.

- ① ‘숲’을 바라보았으나 ‘몰랐다’는 것은 시간을 통과하기 전의 상태이다.
- ② ‘간격이 있다’는 것은 시간을 거치기 전 화자의 내면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 ③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은 시간을 통과한 후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을 비유한다.
- ④ 시인의 현재 가치와 정신세계는 ‘산불’이라는 시련을 겪어낸 후 형성되었다.
- ⑤ ‘멀리서’ 바라보던 대상을 ‘들어가’ 보았다는 공간의 변화도 시인이 가진 의식의 양상을 바꾸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
 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셔야 알았다
 - 안도현, 「간격」 -

원목고등학교 (서울)

4. (가)에서 화자가 알게 된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함축하는 시구는?

- ① 그 복숭아나무 ② 흰꽃과 분홍꽃
- ③ 수천의 빛깔 ④ 흩어진 꽃잎들
- ⑤ 저녁이 오는 소리

원목고등학교 (서울)

5.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가. 의인법을 사용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다.
 나.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다.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라.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드러내고 있다.
 마. 도치법을 활용하여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① 가, 나, 마 ② 가, 다, 라
- ③ 가, 다, 마 ④ 나, 다, 라
- ⑤ 나, 라, 마

원목고등학교 (서울)

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의미한다.
- ② ㉡은 화자가 대상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③ ㉢은 화자가 이해하게 된 대상의 외로움과 아픔을 의미한다.
- ④ ㉣은 나무들이 맞닿아 숲을 이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⑤ ㉤은 화자가 대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원목고등학교 (서울)

7.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대상에 대한 오해가 참된 이해로 바뀌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B]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C]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D]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E]흠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광주인성고등학교 (광주)

8.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인성고등학교 (광주)

9.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그중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 ②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그중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③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그중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④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 ⑤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영동고등학교 (서울)

10. 위 시의 '수천의 빛깔'의 함축적 의미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수천의 빛깔은 _____을/를 의미한다.

영동고등학교 (서울)

11.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기 1>은 복숭아나무를 '사람이 잊지 못할 그늘'을 지닌 존재로 인식했던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참모습을 깨닫고 '그늘' 곁으로 다가가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화자의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는 곁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면에 숨겨져 있지만 '눈부'시게 빛나기 때문에 감춰질 수 없었던 '수천의 빛깔'이었다. 하지만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그 '빛깔'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이, 화자가 읽는 데 '참 오래' 걸린 것이 '그 여러 겹의 마음'이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즉 화자가 발견한 복숭아나무의 참모습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무엇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복숭아나무의 내면이었던 것이다.

- ① '그늘'이라는 동일한 시어가 시의 초반과 후반에 서로 다른 상징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인식 변화가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복숭아나무가 외로웠겠지만 그 외로움조차 몰랐을 것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발견한 복숭아나무의 참모습은 다른 존재와의 단절에도 굴하지 않는 복숭아나무의 강인한 내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화자가 복숭아나무 곁으로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웬지'와 '-르 거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늘'이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이 막연한 추측에 기댄 오해였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을 바꾼 계기가 되었던 '수천의 빛깔'이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있었다는 점에서, 화자가 '곁으로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진정 눈부신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복숭아나무가 지닌 '수천의 빛깔'을 발견했을 때 화자의 복숭아나무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시 속에 나타난 화자의 공간 이동은 인식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

▶**옳다,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3.⑤

▶<보기>의 3연은 임에 대한 원망이 아닌, 사공에 대한 원망이 드러남.

<서경별곡>

*주제: 이별의 정한

*해제: 이 작품은 애절한 사랑과 이별의 정한(情恨)을 노래하고 있는 고려 가요이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문학의 전통으로, 고려 가요 '가시리'와 함께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화자는 불안과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등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현실적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과 다른 독특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옳다, 1등급 조언**◀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도 없는, 외부 작품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낯선 작품을 대상으로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인데 수험생들에게 당연히 부담이 된다. 무엇이 나올지 감도 안 잡히고~그럴 땐 기출에 나온 작품 군들만이라도 조금 정리해두자. 이렇게 <보기>로 전문이 출제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제와 길잡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렇게 익히다 보면 낯선 작품에 대한 큰 틀의 감상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교과서 작품과 비교하여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3음보 vs 4음보

ㄱ. 3음보: 주로 하층, 빠름, 동적

ㄴ. 4음보: 주로 상층, 느림, 정적

2. 문학 배경의 종류 (★)

ㄱ. 공간적: 언어, 행동, 심리 표출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

ㄴ. 시간적: 날짜, 요일, 계절, 년도 등

ㄷ. 심리적: 우울함, 불안함, 기다림, 간절함 등 → 해당 심리가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댐.

5.③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꾸는 도치법이 전과 결에 사용되 슬픔의 감정을 극대화하고 있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의인법 vs 활유법 (★★★)

ㄱ.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2.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ㄱ. 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 혹은 반대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ㄴ. 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 하여 대상과 일치되는 감정을 드러냄. 대상에 대한 감정 이입은 화자의 심리를 우회적(→돌려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떨떨 나는 저 <피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워라 이 내 몸은'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외로움을 환기시키는 <빈 배>와 <피꼬리>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 중 <물>은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상태가 뚜렷하기에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6.④

▶⑦과 ④엔 역설법이 사용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반어법 vs 역설법 (★★★)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7.①

▶(나)도 설의적 표현(~누구이겠나, ~있으랴)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2.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9.①

▶2구에 시각적 심상은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시의 심상과 감각(★★★)

- ㄱ. 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 ㄴ. 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 ㄷ. 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 ㄹ. 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 ㅁ. 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2. 수사법(★)

- 1) 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활유법, 대유법
- 2) 강조법: 과장법, 영탄법, 반복법, 점층법, 연쇄법, 열거법
- 3) 변화법: 도치법, 설의법, 인용법, 대구법, 반어법, 역설법, 생략법

3. 유기적: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 낼 수 없는 성질.

10.④

▶ ⊙ : 어렵고 힘들어진 삶을 의미함

▶넣어둬, 패턴 공략◀

작품 속에 반영된 종교(철학) 관련 어휘 맥락

유교적: 충성, 효도, 학문, 수양, 임금, 우정...

불교적: 환생, 인연, 이별, 자비, 선행...

도교적: 자연친화, 신선사상, 옥황상제, 초현실적...

문학에서의 이상향(★)

문학에서의 '이상적 세계(공간)'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의 모든 불만과 걱정이 없는 곳(→무결점의 완벽함)으로 현실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므로 가난과 고생은 여전히 존재하는 고향집에 아무리 따뜻한 인정과 인간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을 이상적 공간이라고 부르는 어렵다.

'반복', '운율', '유기성'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11.③

▶(가)~(다)는 모두 자연 친화와 상관없음.

▶응, 헛갈리지 마!◀

애상적(★):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 (○)

사랑스러운 감정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즐기며 자연 속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ㄱ. 자연에 의존, ㄴ. 자연과 조화, ㄷ. 자연과 화합, ㄹ. 자연 사랑)

12.④

▶제3구와 제4구에서 과장(대동강에 눈물을 보태 마르지 않음)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인상적으로 강조한다.

13.④

▶(가)에 화자의 소망은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시의 전개 방식(★)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 ㄹ. 대립적 전개
- ㅁ. 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 ㅂ. 선경후정: 경치+정서
- ㅅ. 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넣어둬, 패턴 공략◀

*시상의 확산: 시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대상이 넓어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나에서 우리로 확산

*시상의 전환: 화자의 태도나 감정이 바뀜 (그리움→중오심)

*감정의 심화: 감정이 확대됨 (그리움→사랑)

14.②

▶음성 상징어도 없으며 생동감 있는 분위기와도 상관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음성 상징어(★★★)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넣어둬, 패턴 공략 ◀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현재형 어미> 등의 사용

15.㉓㉕

▶ <보기>에선 '임을 보내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해 이별을 부정하거나 극복하려 함.

<님의 침묵>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해제: 이 시는 절망적인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그것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희망으로 역전시킨 구조에서 감동의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역전의 구조는 '만남은 헤어짐을, 헤어짐은 만남을 전제한다.'라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16.㉑

▶ 탈속적 세계를 지향은 없음.

17.㉔

▶ 인간과 자연을 대비(고움↔슬픔)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1. 성찰에 대해 알아보자! (★★)

- 1) '부끄러움', '후회' 등의 심리 상태는 <반성적> 혹은 <성찰적 태도>와 관련 있다.
- 2) 대개 화자의 반성, 성찰, 깨달음 등을 통해 <교훈>을 이끌어 낸다.
- 3)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 4) <성찰>을 대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뿐만 아니라, 넓게는 어떤 일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고 고민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 ㄱ. 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 ㄴ. 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논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3.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내면 대구법이 됨.

18.㉕

▶ 슬픔의 정서인 것이지만 냉소적 자세는 아님.

▶ **응, 헛갈리지 마!** ◀

애상적 (★):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 (○)

사랑스러운 감정 (×)

*냉소적 태도: 쌀쌀한 태도로 남을 비웃는 태도.

*자조적 태도: 자기를 비웃는 듯한 태도.

<자조적>은 후회, 한탄, 체념, 능력 부족, 의지박약 등의 부정적 정서와 어울린다.

19.㉓

▶ 과장적(대동강에 눈물을 보태 마르지 않음) 시적 진술을 통해 애상적 정서 표현을 극대화하고 있다.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1. 영탄법:

감탄사 '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을 사용하거나, 호격조사 '아, 야, 이여, 이시여' 등과 감탄형 종결어미 '-아라 /-어라, -구나, -는가' 등을 사용하여 강하고 깊은 감정을 드러낸다.

2. 반어법 vs 역설법 (★★★)

-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 **응, 헛갈리지 마!** ◀

역설 vs 역설

역설(力說):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역설(逆說): 모순 어법으로 말하고자하는 바를 강조함

20.㉕

▶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에 관한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연의 섭리로 보기는 어려움.